

#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개최

###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통한 농촌활성화’ 주제로 해결방안 논의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는 18일 산악초타운에서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을 열고,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농촌 위기 속에서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농촌활성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인 진안신문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취재하고 보도했던 서울 광진구, 충남 청양군, 전북 원주군과 진안군의 민(民), 행(行), 학(學)의 협력 사례 및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기조 발제는 ‘농촌지역사회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2017년 대통령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장종익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 발제는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바꾸는 광진구’라는 제목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용수 이사장이 서울 광진구의 통합돌봄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8일 산악초타운에서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야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로 재단설립을 통한 민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례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이 전했다.

마지막 발제는 ‘협업농장을 통한 통합돌봄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명재 센터장이 진안의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객원 진안군 농촌경제국장은 “이번 포럼으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인식을 공유하고,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야

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럼 이후 각 지역에서 함께한 활동가들은 미안산 에코타운(외사양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지역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과 미안산 해설 트레킹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도농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6회 무주군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18일 나들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촬영: 무주군수 표창 수상 사진)

## “무주농업 발전 이끈다”

###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열려

무주군은 제36회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18일 나들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무주농업 발전과 후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단합의 자리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이훈구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박천우 무주군연합회장 등 농업인 3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에서는 무주읍회 박찬석 회원과 무풍면회 최영영 회원, 실천면회 신중근 회원, 안성면회 구자명 회원이 무주발전에 공이 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주는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군연합회 김영수 정책 부회장과 적성면회 신승훈 회원이 무주군

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박천우 무주군연합회장은 “농업·농촌·농업을 위한 4백여 무주군 후계농업경영인들의 활약이 농군 무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농업이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원동력을 삼기하고 우리 자신이 생명산업을 일구는 주역임을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직면해 있는 농업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도 무주 농업의 희망인 청년 농업인들이 끌고 그 뿌리인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이 밀어주면 승풍은 반드시 트일 것”이라며 “군에서는 소득과 인구, 기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그리고 농업인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사천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 관련 시책·성공 사례도 공유키로... 지역 상생 물꼬 기대

무주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의 3백만 원을 상호 기부기로 했으며 이는 지자체 간 우호를 다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자체행정과 임재영 과장은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경남 사천시에 서 진행하게 되면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뜻을 모으게 됐다”며 “상호

기부가 무주와 사천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고향사랑기부 관련 시책과 성공 사례 공유의 계기가 돼 지역 상생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해



무주군과 사천시가 고향사랑 상호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가운데: 무주군수 표창을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신승훈 회원)

택)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이 제공된다. 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사과와 복숭아, 옥수수 등 농산물, 머무와 인과 꿀 등 가공식품, 목재문화체험과 와인축육,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의 체험권, 무주반디랜드 통나무집 숙박할인권 등 5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군부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현재 행안부는 공정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자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

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 등 법적제도를 개정했으며, 지방공사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 전원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해왔다.

특히 군의 ‘과과간조사 연금수령 불편해소’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절차로 독일의 연금수령이 중단될 수



장수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을 수상했다. (가운데: 장수군수 표창을 받은 최우수 공무원 김민호) /장수=고관호 기자

## 바가지요금 걱정 없는 진안홍삼축제 만든다

진안군은 오는 10월 3일~6일까지 4일간 미안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 진안홍삼축제’를 진정하고, 바가지요금 걱정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부스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군청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축제의 흥삼, 수상, 먹거리 등 판매관 홍보, 체험관 부스 참여자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스 운영 준수사항, 친절·위생,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축제장 바가지요금 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교육에 참여한 운영자들은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진안군 공무원들이 ‘바가지요금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가운데: 진안군수 표창을 받은 최우수 공무원 김민호) /진안=우태만 기자

바가지 없는 다양한 먹거리, 깨끗하고 친절할 서비스로 다시 오고 싶은 진안홍삼축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진안홍삼축제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만큼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방문객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장마철 벼 병해충 적기 방제 당부

장수군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상 영향으로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생육 후반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도열병을 비롯한 잎집무늬마름병과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공동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적용약제는 7월부터 8월 기간 중 출수기 전·후 3회에 걸쳐 적기에 살포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농가에서도 벼 생육 후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시 예방과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집중호우 피해 농가 위한 일손 보태

진안군은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관내에 200여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가운데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군청 기획홍보실, 재무과와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20여명이 동향면 침수 피해 수박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

동향면은 수박 농사 면적이 넓고, 수박 재배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4ha가 넘는 수박밭이 물에 잠기는 등 관내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수박 수확을 1주일여 남기고, 농작물이 비에 잠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농가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3,000㎡ 넓이의 수박밭에서 침수 농작물 및 멀칭, 비닐, 할대 제거에 나섰다.

북구 당일에도 비가 연이어 내렸지만 농가에 일손을 보태는 순길을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